2013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격려사

덩실덩실, 너울너울 춤을 춥시다

채 희 완(부산대 교수,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우리 춤의 한 뿌리는 선묘적(linear)인데 있습니다.

그중에 그 선은 직선이되 부드럽게 휘어진 직선입니다. 이는 버선코의 선, 초가지붕의 선, 기와지붕의 선, 백자 항아리의 선, 한국 산천경계의 굽이굽이 흐르는 선과 연관된 선율적인 선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청산의 너그러운 능선과 조화를 이룬 지붕의 부드러운 선'을 '한 생애를 곧게 선 나무의 직선이 모여 만든 선'이라 읊었습니다. '휘어지지 않은 정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다 자리잡아 받치고 있는' 가장 부드러운 자태라 하였습니다.

새내기춤꾼의 곧게 다진 삶의 행로가 부드러운 직선이길 빕니다.

이러한 선은 '태극선의 활궁장'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태극선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내려감의 단초이며 가장 낮은 밑바닥은 또한 상승의 단초입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순환적 진리가 바로 태극선의 의미입니다. 활궁장은 하늘지향적으로 날아가는 새의 이미지와 비슷하여 학체, 학춤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춤사위로 '너울짓'이 있습니다. '너울짓'은 파도치는 듯 말아치듯 제치듯 신명을 출렁이게 하고 또 생성시키는 에너지원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태극이 활동하고 있는 '너울짓'의 이런 모습이 바로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고 '너울너울' 춤추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너울너울'은 상하좌우, 수직과 수평, 사방, 팔방, 시방으로 에너지가 넘나드는 신명난 사람의 춤동작을 일컫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의 선묘는 생명기운의 영성적인 것이 펼쳐지는 역동적 균형으로서 궁궁을을(弓弓乙乙)을 옆으로 누인 무궁한 태극선(太極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살이가 죽어가 더 이상 춤추지 않는 파도를 대신하여 춤추고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새를 대신하여 노래하는 신성한 의무가 새내기 춤꾼에게 놓여 있습니다.

생명원천이 되살아나는 태극선의 춤을 덩실덩실 춥시다. 너울너울 춥시다.

제19회 신인춤제전

젊고푸른 춤꾼 한마당

※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제19회 신인춤제전 젊고푸른 춤꾼 한마당

젊은팀 3/29 (금) 하오 7시 30분 3/30 (토) 하오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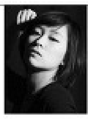
★특별찬조출연

낙엽시초
◆ 안무 및 출연 : 윤재인 (부산대학교 졸업, 경성대학교 무용교육대학원 재학)

꽃잎으로 떨어 올린 정점에서
함부로 부서져 가는 '나'
기울어지는 청춘에
내일 만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사랑발림
◆ 안무 : 김지영 (경성대학교 졸업)
◆ 출연 : 김지영, 황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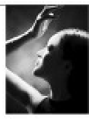
유혹은 필수적인 매력이다.



언덕위에 서서
◆ 안무 및 출연 : 박은지 (신라대학교 졸업, 현 판댄스씨어터 단원)

다가온다,
어둘 거야, 부딪치면 아플 거야,
두 눈을 감아본다.

파랗고 거대한 그리고 반짝이는
그 위에 나 혼자 서있다.



남, 眼
◆ 안무 및 출연 : 구하사 (경성대학교 졸업, 현 현대무용단 주-ㅁ 단원)

그대의 실천으로 충분하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남의 눈치'가 아주 큰 병이다.
— 장자, 귤을 말하다.

진화
◆ 안무 및 출연 : 이수정 (경성대학교 졸업, 현 현대무용단 주-ㅁ 단원)

어둠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깨어난다.
그 의식은 어둠에 머물렀던
'시선'을 하늘과 마주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정(正) · 반(反) · 합(合)
◆ 안무 및 출연 : 김효주 (부산대학교 졸업)

승패와 종망을 걸고
이지적으로 결행하는 단판승부
육체의 강인함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
정신의 온전함은 자아를 다스리는 혼
춤추는 행위는 나를 깨우는 지혜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지 않지만
동질의 것은 아니다.
나를 다스리는 정 · 반 · 합을 통해
변증법(辨證法)적 나를 찾아간다.

뫼비우스의 띠, 그 위를 걷다
◆ 안무 및 출연 : 허유리 (경성대학교 졸업, 현 현대무용단 주-ㅁ 단원)

고요함을 숨이어 하고
고요함 속에서 나를 잊는 것을
호이라 한다..
허허한 호이란
또한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나니..

AWAKENING
◆ 안무 및 출연 : 이용진 (경성대학교 졸업, 현 M-NOTE 현대무용단, GANESH PROJECT)

시간, 의식, 꿈.
실재하는 것. 지금? 봄.

Yesterday is dead
◆ 안무 및 출연 : Generation punch 최하나, 김예진, 김하연, 이예진, 최민서, 구서희 (공동안무)

살면서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이
무수히 많은 만남들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졌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가 되어 지나가버린다.

음악 : 김재우(modern table TO)

sweat
◆ 안무 및 출연 : 김지영 (현 프러스트 무용단 단원)

증발은 액체 분자가
기체상으로 튀어나올만한
강한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

푸른팀 3/30 (토) 하오 7시 30분 3/31 (일) 하오 5시

★특별찬조출연

잠기다
◆ 안무 및 출연 : 김동희 (경성대학교 졸업, 현 프러스트 무용단 단원)

수면 아래로 이끌린다.
손짓 하나로 물을 춤추게 한다.
하지만 깊이 가질 수는 없다.
관계, 막연한 두려움과 선택 앞에
그렇게 잠기고 있다.

紅의 사정
◆ 안무 및 출연 : 이원주 (진주 경상대학교 졸업)

喜(희)하는 따뜻한 紅이자,
怒(노)는 불쾌한 紅
愛(애)하는 여유한 紅이자,
哀(애)하는 비련한 紅이니
樂(락)하은 쾌활한 紅이자,
欲(욕)하은 본능의 紅이니...

나를 만들다
◆ 안무 : 김지은 (현 나루터 무용단 단원)
◆ 출연 : 김지은, 김현주, 박은지

찜통곡물과 소주, 속눈썹,
남방, 담배, 군고구마,
땀에 젖은 경장이리, 치즈케이크,
군만두, 휴대폰, 후드티,
아침잠, 변덕, 열정, 소심함 ...
나는 김지은이다.

비움
◆ 안무 및 출연 : 이혜인 (경성대학교 졸업, 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그림예 단원)

비움만이 채움을 가능케 한다.

두 도시에 살고 있는 나
◆ 안무 및 출연 : 정혜경 (경성대학교 졸업, 현 현대무용단 주-ㅁ 단원)

현실과 꿈을 뜻는 두 도시가 있다.
그 사이에 있는 나는
어떤 곳도 놓칠 수가 없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다.
하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로 내 걸음에 투지를 가져본다.

醉 (취)
◆ 안무 및 출연 : 이상미, 하소영 (공동안무)

술을 들이키고는
울다가 미친 듯 울다가
술을 들이키고는
또 웃다가 그렇게 웃다가
가는 세상이었지
이러나 저러나 다 내 삶이었지

한 잔 비우고 또 비운 잔
취한 채 걸음을 걷다.

명 - 鳴, 明
◆ 안무 및 출연 : 이연정 (부산대학교 졸업, 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석경미무용단 · Redstep 단원)

기나 긴 정적의 어둠 지나
여기 이곳, 울림으로 밝혀본다

여자, 부르다
◆ 안무 : 김경희 (부산대학교 졸업, 현 석경미무용단 · Redstep 단원)
◆ 출연 : 권수정, 김경희

그저 울어 웃으며,
하찮은 이 삶을 돌아보며,
그저 담담히,
너를, 나를, 부르다.

기억할 만큼 지나침
◆ 안무 : 김정은 (부산대학교 졸업, 현 댄스컴퍼니 July 단원)
◆ 출연 : 김정은, 안진영

나는 가끔씩 어둡고 텅 빈
허공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언제부터서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연주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기형도
(안개부성이의 푸른 종이 中에서)

패턴-Pattern
◆ 안무 및 출연 : 김동욱 (경성대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 전문사과정, 현 프러스트 무용단 단원)

몸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
몸을 통해 세상은 드러난다.
삶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무늬,
몸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며
매 순간 기록되는
유일한 리얼리티다.

staff 안무 : 이상민, 김동희 | 무대미술 : 이상민(무대미술가) | 조명 : 장수이(민주공원) | 음향 : 구혜원 | 영상 : 김소현 | 사진 : 이정이(사진작가)
디자인 : 김정희(그래픽디자이너) | 무대감독 : 이주영 | 홍보 : 이준희(민족미학연구소 사무처장), 정정은(연행기획 울·밀울)
총기획 : 연행기획 울·밀울, 최진영 | 예술감독 : 채희완(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